

강도대상을 이루는
오른쪽 대영산업이
함께 하였습니다.
TEL: (02) 433-9544
FAX: (02) 433-9543
HP: (019) 278-1119

◆ 사찰 이프코
전일교동부 지점 급격으로 세력
◆ 사찰 안락(安樂)
◆ 전주동 건립 ◆ 개시관 ◆ 목간관
◆ 273인정 포덕사
사찰차게 명지를 포덕사를 제작하여
본사 직접 사찰은 무로로 드립니다.
(규격 40cm x 10cm)

정성껏 판 연녹색 찻잎...아홉번 볶고 말리는 수고로움도 즐겁다



◇ 차밭에서 따온 찻잎을 곧바로 200~300°C의 가마솥에서 튀어낸다.



◇ 가마솥에서 꺼내어 영긴 찻잎을 문 뒤 비벼내는 작업을 9번 반복한다.



◇ 9번 뒤는 차를 가는 체로 걸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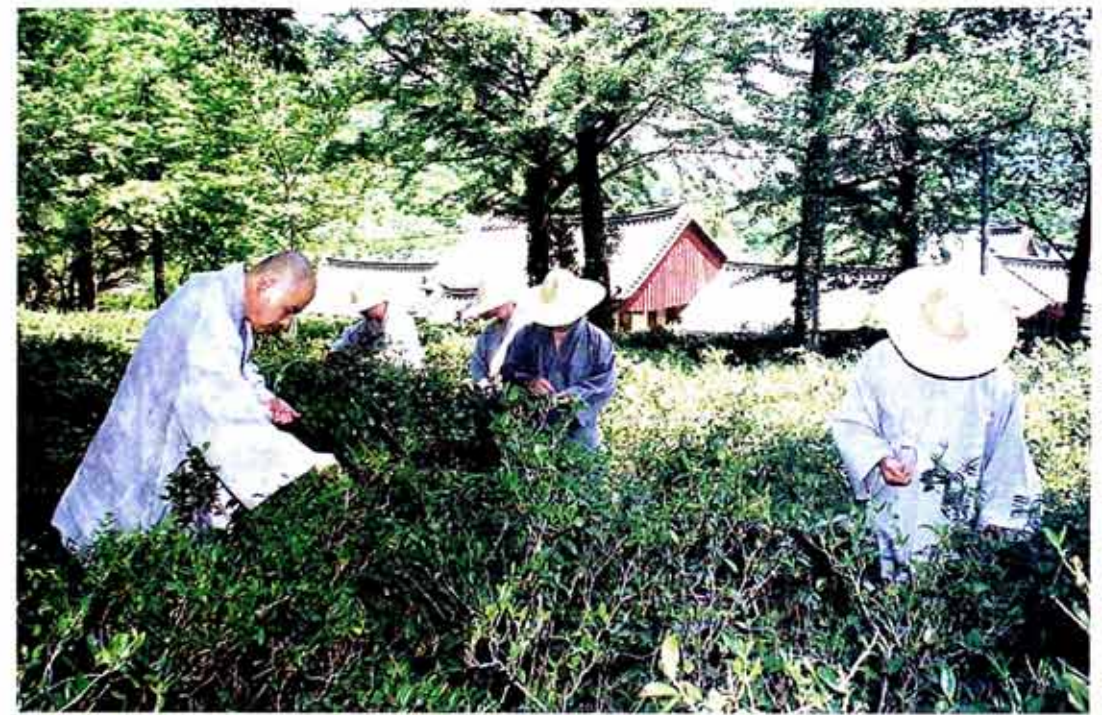


◇ 완성된 녹차. 녹차색을 띤 녹차는 공작의 허저를 동글게 말려진다.

입안에 햇내...마음엔 禪香

성들어 찻잎을 판다.
선암사의 차는 중국과 일본의 다인들에게 알려져 국내보다 오히려 외국에 이름이 높다. 이는 야생 상태로 자란 찻잎이 좋은 이유도 있지만, 차를 만드는 방법이 전통적인 데 있다.
스님들이 직접 차를 따고 가마솥에 볶아내는 전통방식을 그대로 잇고 있는 것은 물론 구중구라 하여 가마솥에 9번 볶고 9번 말리는 수고로움도 기꺼워하며 차를 만들기 때문이다.
9번 볶고 말리기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 해우스님(선암사 재주)은 "한약에서 숙지황도 9번을 볶는 것처럼 본래의 차 맛을 살리면서 식물에 있는 독을 서서히 중화시키는 것"이라며 "볶음차는 차의 여러 잎을 따서 가마솥에 넣어 엽록소를 그대로 유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녹차라고 한다" 말한다.
선암사의 차 만드는 전통은 옛 스님들로부터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밭에서 따온 찻잎은 짙은 명주 위에 가지런히 깔린다. 이어 곧바로 200~300도로 달궈진 가마솥에 찻잎을 튀긴다. 찻잎을 재빨리 뒤집고 살짝 눌렀다가 다시 뒤집는 작업을 반복하며 찻잎을 고무 익히는 것이다. 이때 녹차 향기가 느껴지고 줄기가 익으면 찻잎을 꺼낸다. 그런 다음 찻잎을 전통차지에 10여분간 말린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가 되면 영긴 찻잎을 손으로 일일이 문 뒤 찻잎이 으스러지지 않게 비벼 나간다.
다시 가마솥의 온도를 100도 70도 50도로 점점 낮추면 서 볶은 뒤 영긴 부분을 풀어주고 비벼내는 작업을 반복한다. 그런 사이 찻잎의 색깔은 어느덧 녹황색이 되고 모양은 새의 허저를 동글게 말려진다. 그래서 녹차는 작살차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렇게 8번을 볶은 뒤 마지막으로 1시간여 동안 열은 불의 가마솥에 찻잎을 뒤적거리며 가양처리를 하면 차가 완성된다. 이순간을 해우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차를 뒤집을 때 싸그락 싸그락 맑고 고운 소리가 귓속으로 들어오고 차의 기운이 물안개 서리듯 피어오름을 느낄 때가 완성됐음을 뜻한다"
선암사의 한해 따는 찻잎은 800kg, 가공되면 약 80kg으로 줄어들므로 80명이 1천명이 생산되는 셈이다.
해우스님은 "차는 108번뇌를 말끔히 씻어준다"며 "물에는 겨울에 춥고 비가 오지 않아 유난히 차 맛이 진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차가 전래된 시기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신라 선덕여왕 때인 7세기로 보면서, 직접 재배하게 된 것은 828년(흥덕왕3) 사신 대령(大興)이 당나라에서 종자를 가져와 지리산 쌍계사 인근에 심으면서부터라는 설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차(茶)의 글자는 풀(艸)과 나무(木), 사람(人)으로 구성돼 있는데 즉 자연과 사람은 하나라는 뜻이다. 심신을 청아하게 하는 차는 선과 묘하게 통하여 선다일여(禪一如)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그래서 옛스님들은 선문답에 차를 자주 등장시켰다. 차를 명(茗)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초의선사와 교류했던 추사 김정희는 명선(茗禪)이라는 글귀를 자주 사용했다.



◇ 선암사 칠전선원위 1만5천평 야생차밭에서 찻잎을 따는 사중스님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선암사 가마솥볶음차는 스님들이 직접 차를 따서 가마솥에 9번 볶아내는 전통방식을 고수한다.

명선은 '차를 마시면서 선에 든다'는 뜻이다. 전남 강진에 유배된 정약은 초의선사와 선담을 나누며 다산(茶山)이란 호까지 얻었다.
스님들의 차 나누기가 수행 속의 즐거움으로 자리하게 되면서 차는 불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나갔다. 현재 야생 차밭이 있는 사람은 전남 장흥 보림사, 순천 선암사, 광양 백운산, 경남 하동 다솔사인데 이중 도선국사가 주석했던 공양사 다암면의 백운산 옥룡사 야생 차밭이 최대 규모이다.
특히 한국 차를 대표하는 초의스님은 1828년 지리산 칠불암 아자방(亞字房)에 주석하며 참선하는 여가에 茶神(다신)과 東茶頌(동다송)을 집필했다. 현재 동다송은 다인들에게 최고의 고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차의 생육 온도 한계는 연평균기온이 12.5°C 안팎이다. 우리나라의 분포지는 차 시배지인 경남의 하동을 비롯하여 전남 남해안 일대, 제주도 지역에서 대량 생산된다.
녹차는 중추 예방, 콜레스테롤 저감, 혈압상승 억제, 체내 중금속 제거, 변비개선, 여성미용, 비만 억제, 항암작용을 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인기가 높다.
차는 따는 시기에 따라 우전, 세차, 중차, 대차로 구분한다. 또 제조법에 따라 크게 불발효차·반발효차·발효차로 나뉜다. 우리나라 차의 대부분은 불발효차인 녹차다. 반발효차는 찻잎을 햇볕에 노출시켰다가 그늘에서 말려 가마솥에 넣고 볶는 것으로 우롱차(烏龍茶)가 있다. 발효차는 잎을 시들게 한 뒤 비벼서 발효시킨 것으로 홍차(紅茶)가 대표적이다.

중국차 시장 잠식...국산차 개발 절실

기·자·수·첩

한국의 녹차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차의 대량유입으로 국산차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은 이미 오래다.
지난해만도 6.1톤이 수입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국내에 들여오는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란 계농수산물 유통공사의 집계다.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입맛도 이미 중국 차에 길들여졌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현재 국산차는 고급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차에 밀려나 있다. 대중차 시장도 중국 찻잎의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대중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태평양이 중국의 찻잎을 가공하여 티백제품을 판매하는 등 국내 차 산업은 위 아래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최근 기형상중 하나는 중국을 방문하는 스님과 다인들의 대부분이 차를 구입해오고 있으며, 차를 구입하기 위해 직접 단위로 중국을 방문하는 일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 덩달아 5만~10만원을 상회하는 국산차보다 2~3배인 20~300만원을 호가하는 중국차를 판매하는 중국차 판매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지리산 차천지 대표 이수동씨는 "현재 고급 국산차의 개발이 전무한 상태"며 "중국차와 맞설 수 있는 품격 높은 국산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차인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중이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 선암사 야생차밭에서 자란 연녹색의 찻잎은 새벽이슬을 머금고 빛을 발한다.

我今清淨水(아금정정수)
覺爲甘露茶(변위감로다)
香嚴三寶雨(봉헌삼보전)
願盡甘露受(원수애남수)

저는 지금 맑고 깨끗한 물로
감로의 차를 만들어
거룩한 부처님과
거룩한 가르침과
거룩한 승가에 올리오니
부디 어여베여겨 주시옵소서.

21일 새벽 내시, 도량석 목탁소리와 범종소리가 장중하게 울리자 천년고찰 순천 선암사 대웅전에서는 50여명의 대중스님들이 새벽예불을 올리기 시작했다. 새벽예불은 먼저 삼보전에 정성들여 올린 차를 올린다는 다계(茶周)의식으로 시작했다.
예불 후 도량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기 시작한다. 5월초 처음 찻잎을 판 뒤 그 동안 차밭의 상태를 세심히 살피며 예타계 기다려온 2번째 찻잎을 따는 물력을 하는 날인 것이다.
청명한 날 새벽 이슬이 마르기 전에 따는 차를 최고로 치기에 선내 대중들은 서둘러 차밭에 모였다.
칠전선원 위 1만5천평 야생차밭에는 연녹색의 찻잎이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이슬을 머금고 빛을 발한다. 차밭에 모인 대중들은 목탁소리에 맞춰 반배를 올린 뒤 한일한일 정



◇ 스님들은 차를 마시며 선담 나누는 것에서 수행속의 즐거움을 찾는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몸 기꾸기, 마음 기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크업 잔여물까지도 깨끗이 한분위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마사지 효과 피부노화 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임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p>무공 동자</p> <p>좌선 동자</p>	<p>비스 동자</p> <p>연꽃</p>
---------------------------	------------------------

제품 가격
 ■ 1개 당 : 3,000 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
 ■ 4개 1세트 : 10,000원(구입가격 50,000원 이하 시 발송료 별도)윤선가격
 ■ 2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500원
 ■ 500개 이상 :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개당 : 2,000원

제품 가격
 ▶ 1개당 : 15,000원
 ▶ 100개 이상 : 14,000원
 각각의 금비누 포장 상자에 주문자 디자인 스티커 또는 인쇄

순금은 피부에 접촉하면 음이온을 범으로 피부의 산성도를 높여 보호력 강화 및 피부층에 화장품 성분 침투가 화장품 성분의 침투가 쉽게 되도록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우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순식물성 한방 투명 비누에 순금 가루를 함유하여 미용 효과를 더해 줍니다.

소품물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